



[라이프] 동원그룹 참치사업 넘어 바이오·프랜차이즈로



Life

[라이프] 없는게 없는 편의점 1인가구 장보기 '미니마트' 역할



# 도움받던 아이, 도움주는 어른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 될 것”



## 새벽을 여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김두형씨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약자를 돌보는 역할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 행동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다. 그때부터 다짐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다짐한다. 오늘도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자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김두형 사회복지사는 이 같은 다짐을 지키면서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다.

### ◆내가 받은 도움 나누고파

김두형 사회복지사 역시 어린 시절 복지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한다.

김두형 사회복지사는 “일을 하다보면 아직도 힘든 어린 시절이 문득문득 생각난다”며 “그 시절 곁에서 따뜻한 마음과 큰 관심을 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어릴 때부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란 생각을 하며 자라왔다”고 했다.

김 사회복지사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 자원봉사를 꾸준히 다니면서 사회복지 전반의 분위기와 이해도가 높았다.

그는 “친구들은 학교를 마친 후 집에 오면 쉬었다가 학원을 갔지만, 저는 하고 후 지역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전달해 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다”며 “어느 순간 어르신들은 친손자 처럼 반겨주었고 말동무가 되면서 서로의 감정에 공감한 것이 오늘날 일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관이라는 공간이 주변 이웃들과 어르신들의 마을회관처럼 방문하는 공간이라는 것도 일찍 깨달았다.

그는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매일 방문하는데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 친구들을 보고 사소한 일상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하루라도 안보이는 날이면 무슨 일 벌어진 것 아니냐며 복지사들 보다 먼저 집에 방문하고, 연락을 한다”고 했다

복지관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가족이 형성돼 애정이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 복지사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진 후에도 복지관은 다르지만 분위기는 학생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힘들 때도 있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보람되고 알찬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사회복지사라는 일에 대한 애착함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 ◆사회복지사의 맘과 인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는 때보다 중요해졌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당시 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겨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늘어났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사회 복지시설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노인·청소년 활동 보조 ▲복지관 배식활동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줬던 일까지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했다.

또한 방역까지 업무에 추가돼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졌다.



김두형 사회복지사가 지난해 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두형 사회복지사가 영양사팀과 복지관 프로그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어린시절, 복지 도움 받으며 자라 도움되는 사람 되고자 사회복지사로

### 어릴적부터 지역 복지관 찾아 봉사활동 서로 감정 교류하며 하나의 가족 형성

### 코로나로 사회복지사 역할 중요해져 인력부족해 업무량↑, 처우개선해야 온전한 복지 위한 따뜻한 관심 필요해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면 견잡을 수 없이 감염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인력이 더 많이 배치될 경우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당하는 분들에게 정성을 더욱 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사들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돕기 때문에 온전한 복지를 실행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고 했다.

실제 퇴사한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명 중 3명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일주일 평균 55~60시간 근무하고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근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다.

김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고 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확대된다면 업무증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이 온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다란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 복지가 과거보다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천가,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가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회복지사는 “중요부품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맘이 업무 성취감과 비례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WBC, ‘체코전 3실점’ 한국, 8강 진출 더 고요했다 /사진 뉴시스  
▲조재호, 한국인 최초 PBA 월드챔피언 등극

▲이집트 아스완 여성영화제에서 정지혜 감독의 ‘정순’ 최고상  
▲‘생활고 시달린다’던 배우 김새론... 카페알바 셀프인증 ‘자충수’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2, 공개적 후 세계 3위  
▲손흥민, EPL 통산 99호골 터뜨려... 토트넘 승리 /사진 뉴시스